



8월 자산배분 전략: 지정학적 불확실성과 장기금리 차별화

자산배분/스타일전략 김중원

02) 3787-2290

simon@hmsec.com



Executive Summary

1. 이란 전쟁 점검: 8월 금융시장 방향성 결정

- 미국과 이란 간 군사적 충돌이 8월 금융시장의 가장 중요한 변수이며, 휴전 여부에 따라 위험자산과 안전자산의 성과 차별화 예상
- 협상 진전 시 유가 안정과 위험선호 회복이 기대되나, 에너지 공급 차질 발생 시 장기금리 상승과 변동성 확대 가능성 상존
- 지정학적 불확실성이 여전히 높은 만큼 방향성보다 시나리오별 대응 전략이 중요한 국면

2. 국내 · 미국 국채 전략: 국내 장기채는 신중, 미국 장기채는 투자매력 개선

- 국내는 기준금리 인상에도 확대재정과 국채 공급 부담이 장기금리 상승 압력으로 작용해 장기국채 투자에는 신중한 접근 필요
- 미국은 재정악화에 따른 국채 공급 우려가 지속되고 있으나, 실제 순증 발행 규모는 시장 우려를 하회하며 장기국채 투자매력 개선
- 국내는 캐리 중심 전략을 유지하고, 미국은 높아진 금리를 활용한 점진적 장기국채 비중 확대 전략 유효

3. 반도체 점검: 피크아웃 우려보다 후기 사이클 진입

- 메모리 가격과 12개월 선행 EPS는 여전히 개선 흐름을 이어가며 과거 피크아웃 국면과 다른 모습
- 최근 조정은 AI 투자 사이클 종료보다 GPU · HBM 세대교체 과정의 불확실성과 차익 실현 성격이 강한 것으로 판단
- 후기 사이클에서는 PER 조정이 나타날 수 있으나 실적 개선이 지속되는 만큼 반도체 비중 확대 의견 유지

4. 자산배분 전략: 장기금리 부담 속 실적 중심 대응

- 국내 장기금리는 확대재정과 국채 공급 부담으로 높은 수준이 지속될 가능성이 있어 듀레이션 확대보다 캐리 전략 선호
- 미국 장기금리는 재정 불확실성과 기간 프리미엄 확대가 부담이나 실제 국채 공급 확대는 아직 제한적
- 국내주식은 반도체 중심의 비중 확대를 유지하며, 채권은 우량 크레딧 중심, 대체투자는 중립적 관점에서 선별적 접근 권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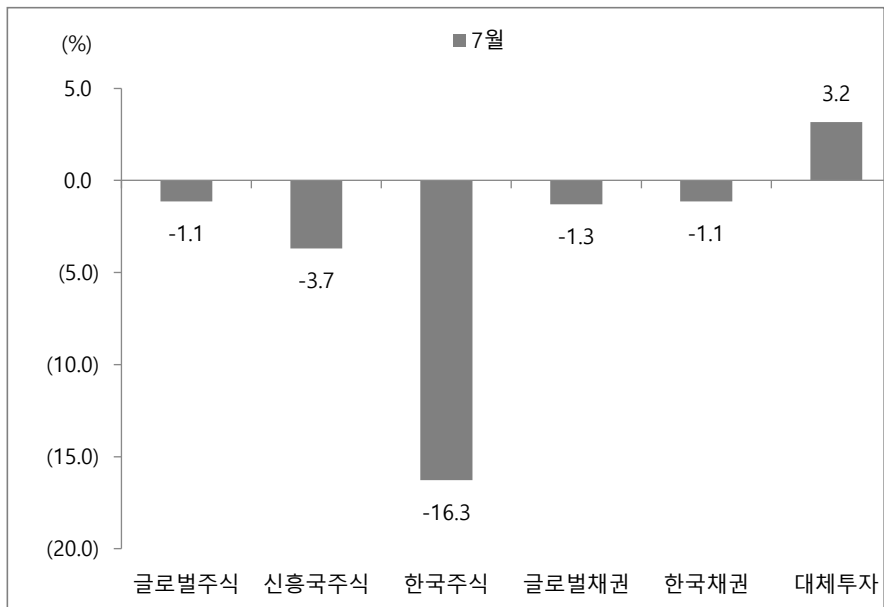


7월 금융시장 점검: 지정학적 리스크와 변동성 확대

7월 자산배분 동향

- 7월 자산시장은 주식과 채권이 동반 약세를 보인 가운데 원자재를 중심으로 한 대체투자만 강세를 기록하며 전통자산과 대체자산 간 성과 차별화 확대
- 한국 주식은 반도체 업종 변동성 확대로 가장 큰 폭의 조정을 기록했으며, 글로벌·신흥국 주식도 지정학적 위험과 위험회피 심리로 동반 약세
- 채권은 주요국 장기금리 상승으로 부진한 반면, 대체투자는 국제유가 상승에 힘입어 유일하게 플러스 수익률 기록

7월 주요 자산군별 수익률 비교



주: 7/23일까지 수익률 비교
자료: Bloomberg, 현대차증권

7월 주요 자산별 점검

구분	설명
글로벌 주식	지정학적 위험과 기술주 조정으로 약세
신흥국 주식	달러 강세와 위험회피 심리로 부진
한국 주식	반도체 변동성 확대로 큰 폭 조정
글로벌 채권	장기금리 상승으로 약세
한국 채권	기준금리 인상과 금리 상승으로 약세
대체투자	국제유가 상승에 힘입어 상대적 강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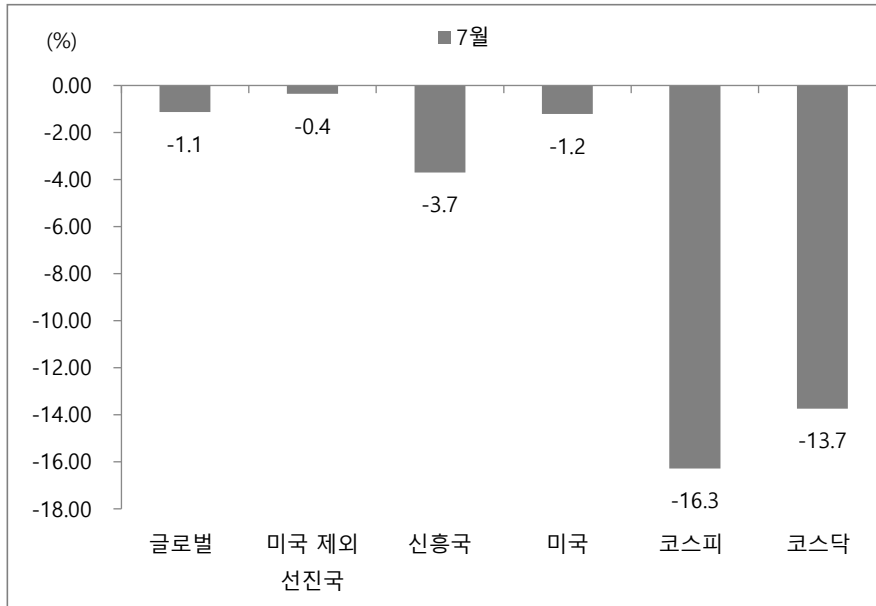
자료: 현대차증권



이란 전쟁과 반도체 변동성 확대로 글로벌 증시 조정

- 7월 23일 기준 글로벌 주식시장은 이란 전쟁 확대와 국제유가 상승, 반도체 피크아웃 우려가 맞물리며 전반적인 조정
- 미국 제외 선진국은 기술주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고 금융·방어주가 선전하면서 -0.4%로 가장 양호한 수익률 기록
- 반면 KOSPI와 KOSDAQ은 반도체주 급락과 외국인 매도, 레버리지 수급 악화가 중첩되며 글로벌 증시 대비 큰 폭의 하락

7월 글로벌 주식시장 수익률 비교



주: 7/23일까지 수익률 비교
자료: Bloomberg, 현대차증권

7월 글로벌 주식시장 점검

구분	설명
글로벌	이란 전쟁 확대와 유가 상승, AI·반도체 변동성 확대로 전반적 약세
미국 제외 선진국	기술주 비중이 낮고 금융·방어주가 선전하며 상대적으로 양호
신흥국	위험회피와 달러 강세, 아시아 증시 약세 영향으로 부진
미국	대형 기술주 차익실현과 AI 투자 피크아웃 우려로 조정
코스피	반도체 피크아웃 우려와 이란 전쟁 확대, 외국인 매도로 급락
코스닥	성장주 중심 위험회피와 레버리지 수급 악화로 큰 폭 하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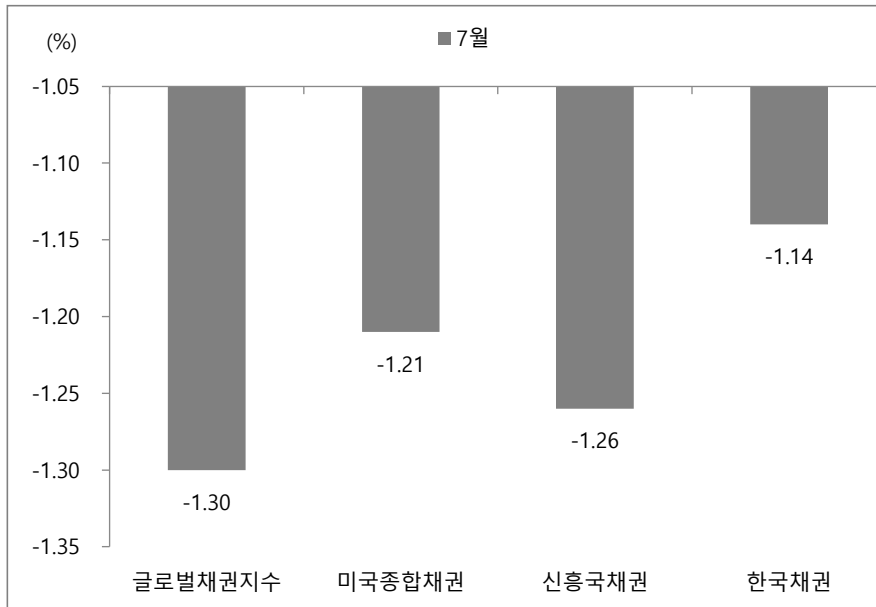
자료: 현대차증권



7월 채권시장, 인플레이션 우려와 장기금리 상승

- 7월 글로벌 채권시장은 월초 물가 안정과 금리인하 기대에 우호적인 흐름을 보였으나, 월말로 갈수록 미국 · 이란 간 군사적 긴장과 국제유가 상승이 부각되며 약세 전환
- 미국 장기금리는 에너지발 물가 재상승 우려와 지정학적 불확실성을 반영해 빠르게 상승했으며, 미국 10년물 국채금리는 4.7% 수준까지 상승
- 이에 따라 미국 종합채권과 글로벌 채권지수가 하락했으며, 신흥국 채권도 달러 강세와 위험회피 심리로 부진한국 채권 역시 기준금리 인상과 경기지표 호조로 금리 상승 압력이 확대되며 약세 기록

7월 글로벌 채권시장 수익률 비교



주: 7/23일까지 수익률 비교
자료: Bloomberg, 현대차증권

7월 글로벌 채권시장 점검

구분	설명
글로벌 채권	월초 물가 안정에도 월말 지정학적 위험과 장기금리 상승으로 약세
미국 종합채권	국제유가 상승과 장기금리 급등으로 하락
신흥국 채권	달러 강세와 위험회피 심리 확대로 부진
한국 채권	기준금리 인상과 경기지표 호조로 금리 상승 압력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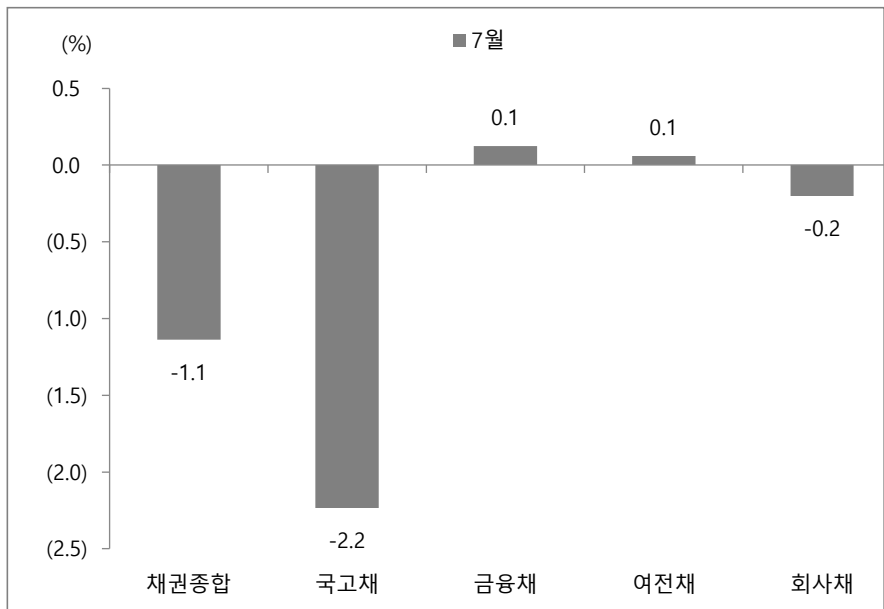
자료: 현대차증권



7월 국내 채권시장: 금리 상승에도 크레딧 건조

- 7월 국내 채권시장은 국고채 금리가 큰 폭 상승한 반면, 크레딧 스프레드는 안정적인 흐름을 유지하며 채권 유형별 성과가 차별화
- 2분기 GDP가 시장 예상치를 상회하는 등 경기 개선 신호가 확인되면서 추가 금리인상 가능성이 부각
- 여기에 확대 재정에 따른 국채 공급 부담까지 더해지며 장기 금리 상승 압력이 확대
- 반면 금융채와 여전채는 국고채 대비 상대적으로 양호한 수익률을 기록했으며, 회사채 역시 크레딧 스프레드 안정에 힘입어 국고채 대비 낙폭 제한

7월 국내 채권시장 수익률 비교



주: 7/23일까지 수익률 비교
자료: Bloomberg, 현대차증권

7월 국내 채권시장 점검

구분	설명
채권종합	국고채 약세 영향으로 하락
국고채	금리 인상과 장기금리 상승으로 부진
금융채	크레딧 스프레드 안정으로 상대적 강세
여전채	금융채와 함께 견조한 수익률 기록
회사채	스프레드 안정으로 낙폭 제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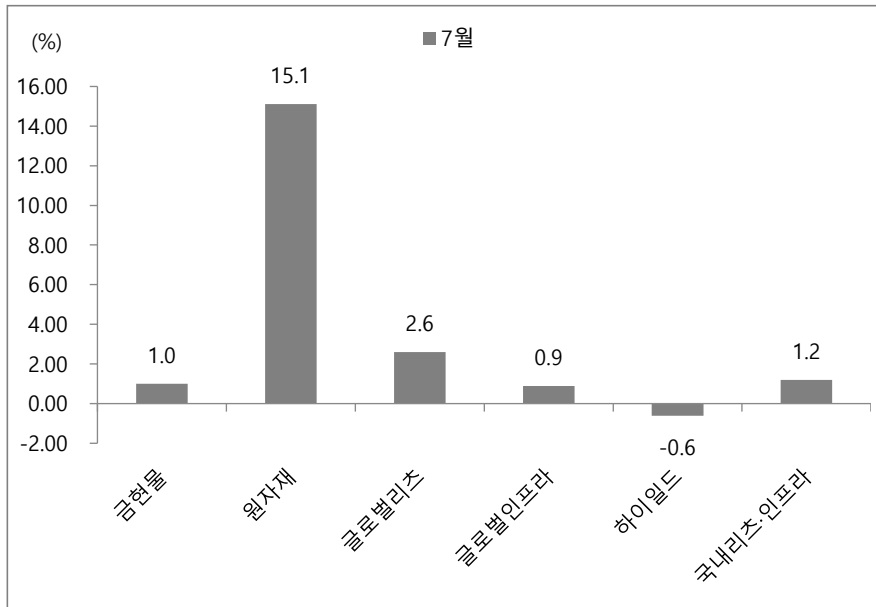
자료: 현대차증권



7월 대체투자, 원자재 중심의 차별화된 강세

- 7월 23일 기준 대체투자 시장에서는 중동 지역의 군사적 긴장과 원유 공급 차질 우려가 확대되며 원자재가 15.1% 상승해 가장 높은 수익률 기록
- 금현물도 지정학적 불확실성과 안전자산 선호에 힘입어 1.0% 상승했으나, 국제유가 급등을 반영한 원자재와 비교하면 상승폭은 제한
- 글로벌 리츠와 글로벌 인프라는 각각 2.6%와 0.9% 상승하며 플러스 수익률을 기록했으나, 장기금리 상승 부담으로 자산별 수익률 차별화 지속
- 국내 리츠·인프라는 1.2% 상승한 반면, 글로벌 하이일드는 위험회피 심리와 크레딧 부담으로 0.6% 하락하며 대체투자 중 유일하게 약세 기록

7월 글로벌 대체투자 수익률 비교



주: 7/23일까지 수익률 비교
자료: Bloomberg, 현대차증권

7월 글로벌 대체투자 점검

구분	설명
금현물	지정학적 리스크와 안전자산 선호로 완만한 강세
원자재	국제유가 급등 영향으로 가장 높은 수익률 기록
글로벌리츠	장기금리 상승 부담으로 제한적 반등
글로벌인프라	안정적 현금흐름에 힘입어 상대적으로 견조
하이일드	신용스프레드 안정에도 위험회피 심리로 약세
국내리츠·인프라	인프라의 안정적인 흐름에 힘입어 주식·채권 대비 상대적으로 양호

자료: 현대차증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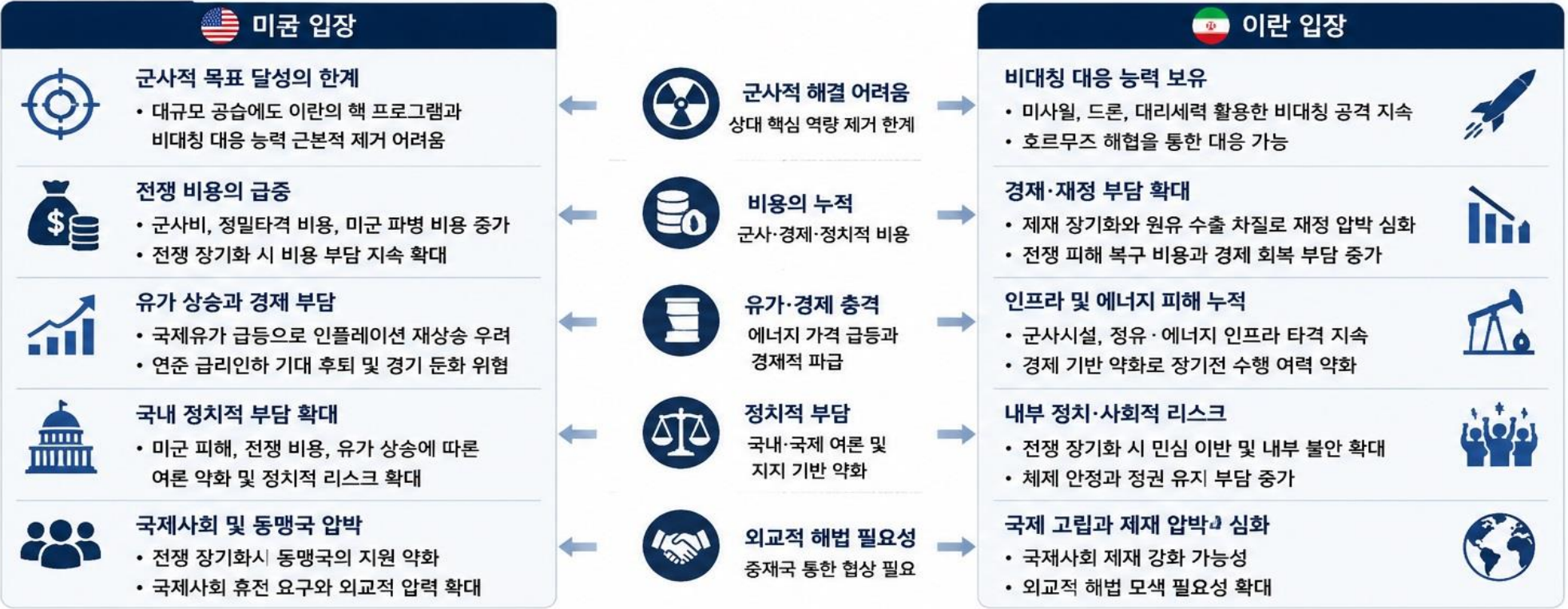


8월 핵심 투자변수 점검: 지정학적 위험과 장기금리 차별화

8월, 전면전 지양하고 협상에 들어갈 필요성

- 현재까지의 군사적 충돌은 상대의 핵심 목표를 달성하기에는 한계가 명확한 가운데, 전쟁의 지속 비용과 불확실성이 빠르게 누,
- 양측 모두 전면전 장기화를 원하지 않으며, 상호 공격 강도를 조절하면서 중재국을 통한 협상 또는 제한적 휴전에 나설 필요성 확대
- 따라서 8월에는 전면적 확대보다는 제한적 충돌 속에서 협상을 모색하는 국면이 전개될 가능성이 높음

군사적 해결의 한계와 비용 부담이 협상 필요성을 확대



결론

양측 모두 군사적 수단만으로 목표 달성이 어렵고,
전쟁 지속 비용이 빠르게 누적

➔

8월에는 전면전보다는
제한적 충돌과 협상 모색 가능성 확대

자료: 언론종합, 현대차증권

이란 전쟁 향방이 8월 금융시장 방향성 결정

- 8월 금융시장의 핵심 변수는 미국과 이란 간 군사적 충돌의 향방이며, 전쟁의 전개 양상에 따라 위험자산과 안전자산의 성과가 크게 달라질 전망
- 현재는 군사적 긴장이 지속되고 있으나 양측 모두 전면전 장기화에 따른 경제적 부담이 커지고 있어 협상 가능성도 함께 확대
- 따라서 8월 금융시장은 전면전 · 제한적 충돌 · 휴전 및 협상의 세 가지 시나리오를 중심으로 대응 전략을 점검할 필요

시나리오	주요 전개 및 판단 기준	금융시장 파급경로	자산배분 시사점
협상·긴장 완화	휴전 합의, 공격 중단, 원유 수송 정상화	유가 하락 → 기대인플레이션 완화 → 장기금리 안정, 위험선호 회복	주식 비중 확대, 성장주·경기민감주 회복
제한적 충돌 지속	군사시설 중심의 간헐적 공격, 에너지 시설 피해 제한	유가 위험 프리미엄 유지, 변동성 고착, 자산별 차별화	중립적 주식 비중, 원자재·금·방어주 병행
에너지 공급망 충격	원유 생산시설 공격, 호르무즈 운항 차질	유가 급등 → 물가 재상승 → 금리인하 기대 후퇴 및 장기금리 상승	주식 축소, 원자재·에너지 확대, 장기채 신중
지역전 확산	주변국 및 홍해까지 충돌 확대, 미군 직접 개입 강화	경기 둔화와 물가 상승이 동반되는 스태그플레이션 위험	현금·금 확대, 주식 및 크레딧 축소, 단기채 선호

자료: 언론종합, 현대차증권



CUSTOMER



CHALLENGE



COLLABORATION



PEOPL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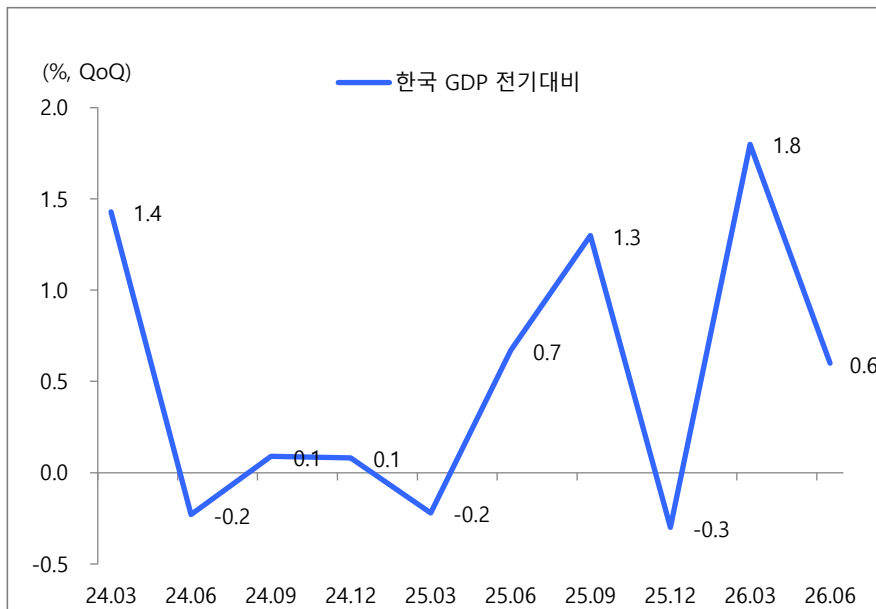


GLOBALITY

높았던 기대를 다시 웃돈 한국 2분기 성장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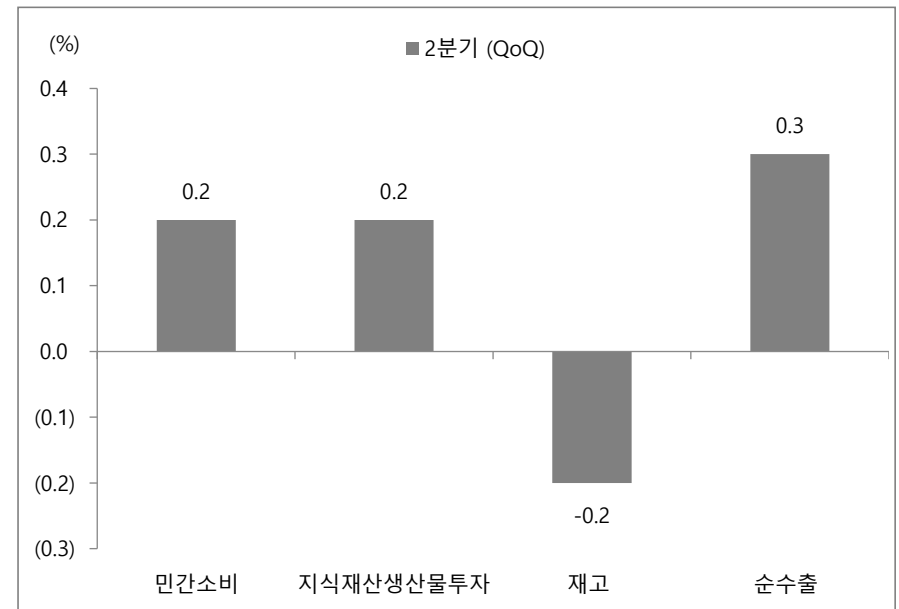
- 1분기 전기 대비 1.8%의 높은 성장 이후에도 2분기 GDP가 0.6% 증가하며 한국은행 전망치와 시장 예상치를 모두 상회
- 반도체 중심 수출 호조와 민간소비 회복이 함께 나타나며 내수와 순수출이 각각 성장률을 0.3%p 견인
- 높은 기저와 중동발 대외 불확실성에도 성장 모멘텀이 유지되며 한국 경기와 기업이익 전망의 추가 상향 가능성 확대

한국 분기 GDP 성장률 추이



자료: Bloomberg, 현대차증권

2분기 GDP 주요 부문별 성장기여도



주: 주요 부문 기준으로 반올림에 따라 합계가 GDP 성장률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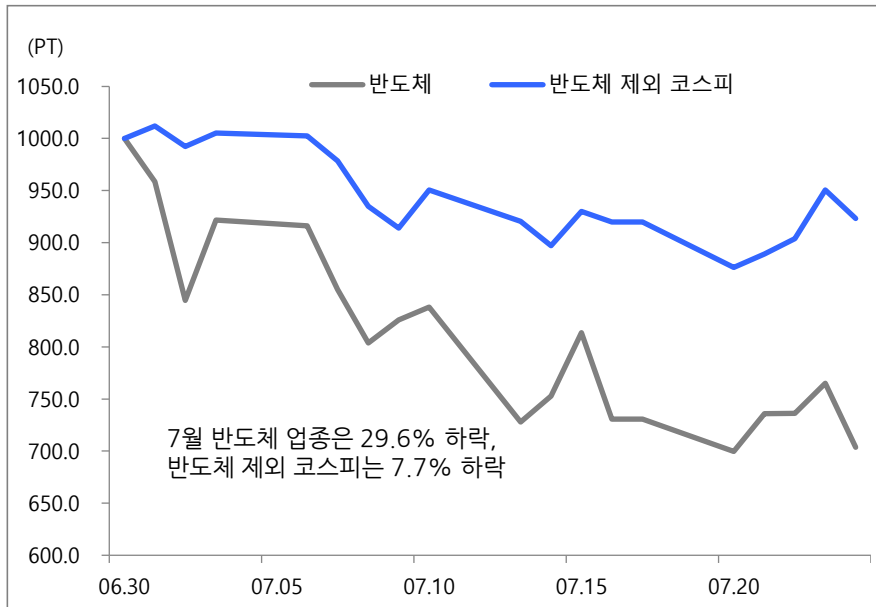
자료: 한국은행, 현대차증권



픽아웃 우려는 선반영, 펀더멘털은 아직 견조

- 7월 반도체 업종은 29.6% 하락하며 코스피 조정을 주도했으나, 반도체 제외 코스피는 7.7% 하락에 그쳐 이번 조정이 특정 업종에 집중
- 시장은 AI 투자 둔화와 HBM 픽아웃 가능성을 선반영했지만, 최근 주가 하락 폭은 실적 전망 변화보다 크게 확대
- 따라서 현재 주가 조정은 반도체 업황의 픽아웃보다 기대치 조정과 차익실현 성격이 강한 것으로 판단

7월 반도체와 반도체 제외 코스피 추이



자료: 에프앤가이드 QuantiWise, 현대차증권

픽아웃 우려 점검

구분	점검내용
주가	반도체 중심 조정
12M FWD EPS	상향 추세 지속
메모리 가격	DDR5 강세 지속
HBM 수요	장기 공급계약 확대
종합 판단	픽아웃보다 기대치 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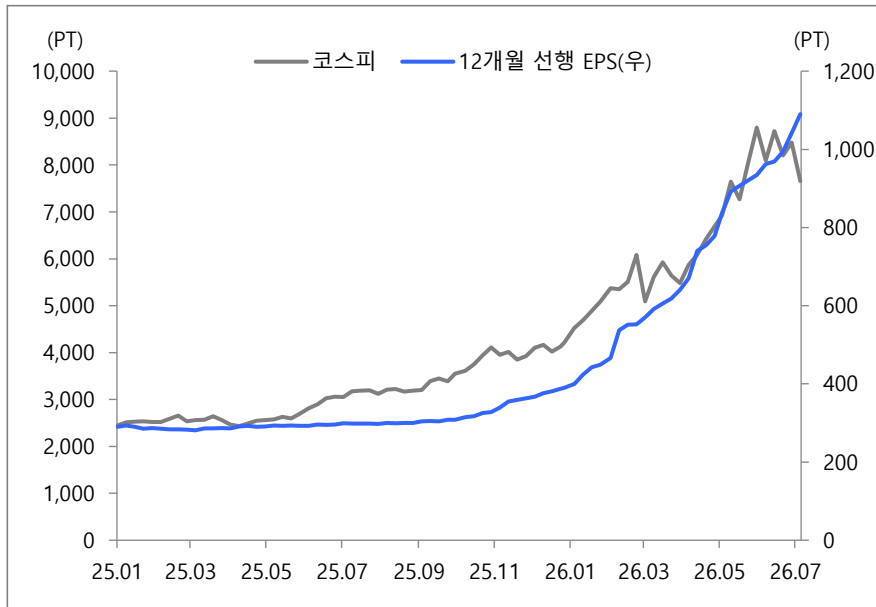
자료: 에프앤가이드 QuantiWise, DRAmEXchange, 현대차증권



펀더멘털은 아직 피크아웃을 말하지 않는다

- 과거 반도체 업황 피크아웃 국면에서는 주가 조정과 함께 12개월 선행 EPS가 정체되거나 하향 조정되며 이익 사이클 둔화가 먼저 확인
- 반면 현재는 7월 주가 변동성 확대에도 불구하고 코스피 12개월 선행 EPS가 지속적으로 상향 조정되고 있어 과거 피크아웃 국면과는 다른 모습
- 메모리 가격 상승과 HBM 중심의 견조한 수요를 감안하면 최근 반도체 주가 조정은 업황 둔화보다 기대치 정상화 과정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
- 결국 현재 반도체 업종은 과거 피크아웃 국면에서 나타났던 이익 둔화 신호가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으며, 최근 주가 조정은 실적 악화보다 높아졌던 기대치가 정상화되는 과정으로 판단됨

코스피와 12개월 선행 EPS 추이



자료:Refinitiv, 현대차증권

피크아웃 판단 근거

구분	점검내용
12개월 선행 EPS	주가 조정에도 상향 조정 지속
메모리 가격	DDR5 현물·고정가격 상승 지속
HBM 수요	장기 공급계약으로 높은 실적 가시성
종합 판단	전형적인 피크아웃 신호는 아직 제한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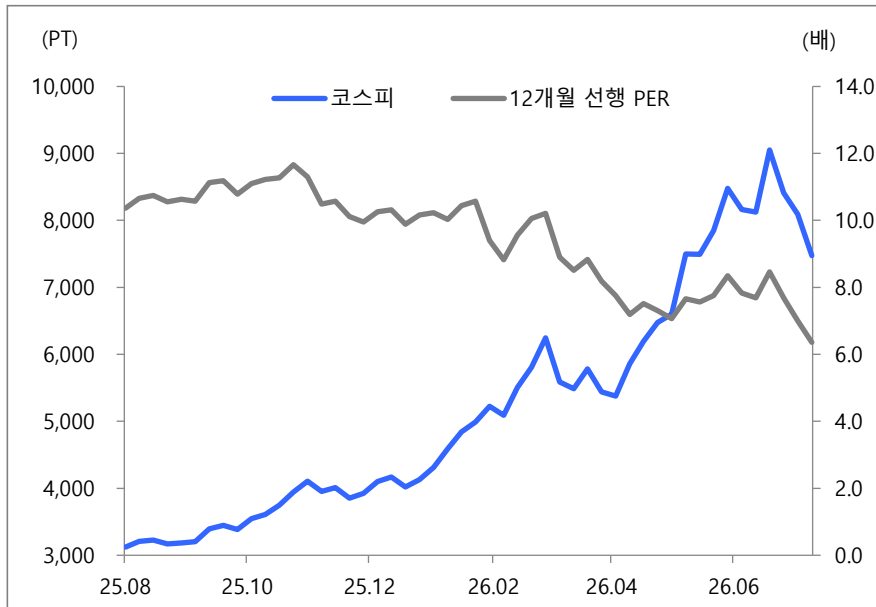
자료: Refinitiv, DRAMeXchange, 현대차증권



픽크아웃보다 후기 사이클 진입

- 최근 반도체 업종의 조정은 AI 투자 사이클 종료보다 후기 사이클 진입 과정에서 나타나는 PER 하락의 영향이 더 큰 것으로 판단
- 현재는 코스피 PER은 하락하는 반면 12개월 선행 EPS는 상향 조정되고 있어 과거 픽크아웃과 다른 모습
- 실적 개선이 이어지는 후기 사이클에서는 PER 하락만으로 픽크아웃을 판단하기 어렵고, 반도체 업종에 대한 비중 확대 의견을 유지

실적은 증가하지만 PER은 하락하는 후기 사이클



자료: 에프앤가이드 QuantiWise, 현대차증권

후기 사이클 판단 근거

구분	판단
주가	픽크아웃 우려 상당 부분 반영
EPS	이익 사이클 지속
PER	후기 사이클 특성상 하락
업황	메모리·HBM 견조
전략	반도체 비중 확대 유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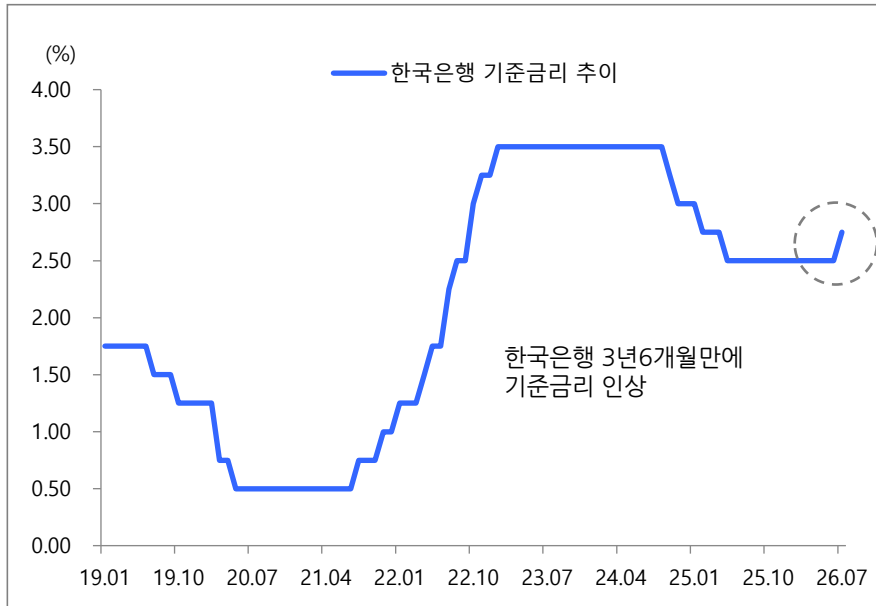
자료: 에프앤가이드 QuantiWise, 현대차증권



확대재정과 구축효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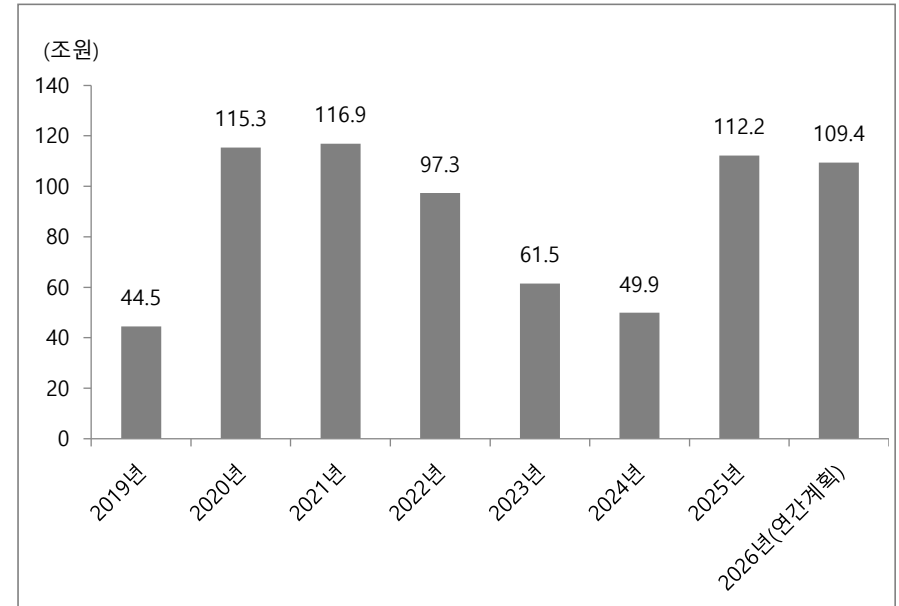
- 한국은행은 7월 3년 6개월 만에 만장일치로 기준금리를 인상했으며, 시장은 추가적인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을 반영하는 모습
- 반면 정부는 반도체 호황에 따른 세수 개선에도 불구하고 연간 100조 원 이상의 국채 순증발행을 지속하는 확대재정 기초를 유지
- 통화긴축과 재정확대가 동시에 나타나는 정책 조합에서는 구축효과와 기간 프리미엄 확대가 장기금리 상승 압력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어, 장기국채에 대해서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상 사이클 재개



자료: 한국은행, 현대차증권

확대재정으로 국고채 순증발행 100조원대 지속



주1:순증발행은 국고채 총발행액에서 만기상환 및 조기상환 등을 차감한 국가채무 잔액 증가분.

주2: 2025년은 추경 반영 발행계획, 2026년은 정부 계획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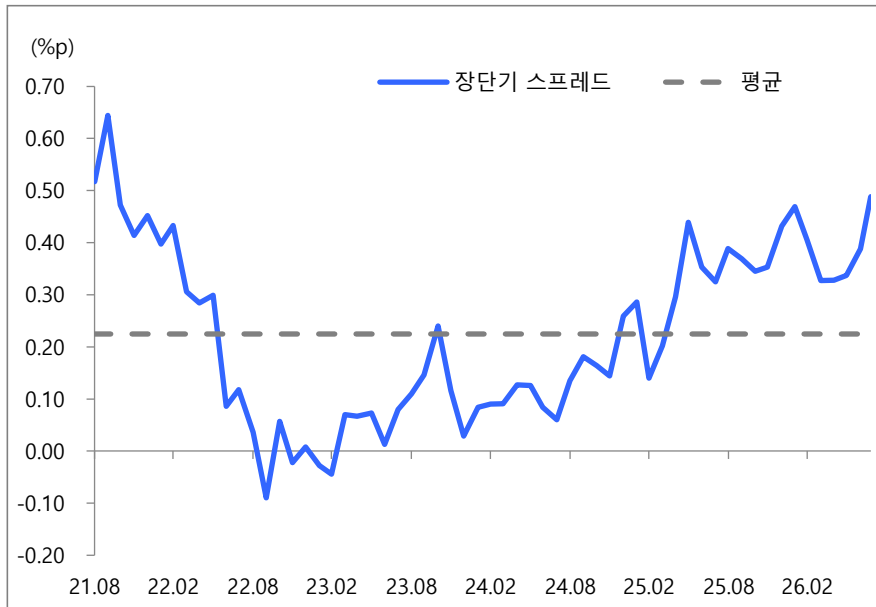
자료: 재정경제부·기획재정부, 국고채 발행계획 및 국채시장 정책방향, 현대차증권



장기금리 부담과 안정적인 크레딧 여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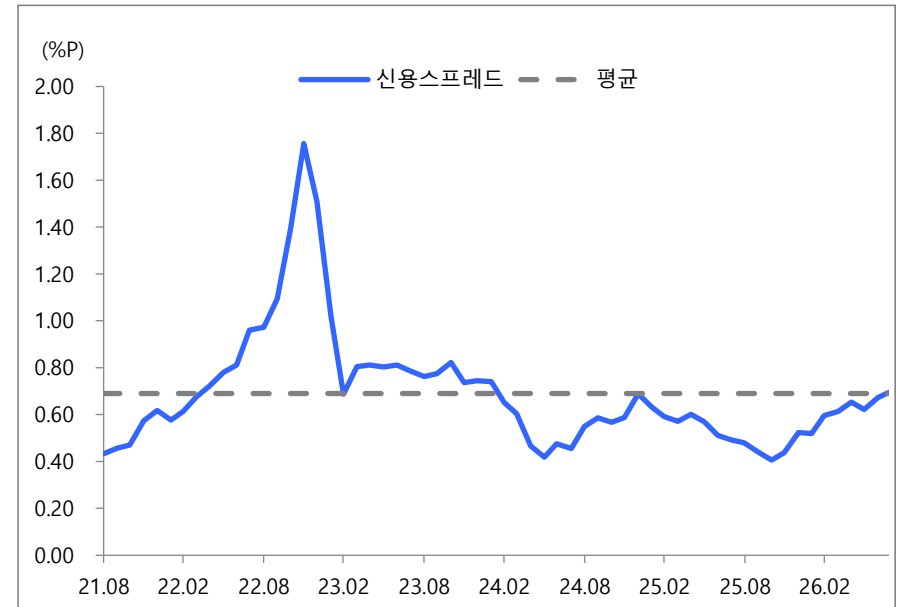
- 확대재정에 따른 국채 공급 증가와 기준금리 인상에도 장기금리가 상대적으로 큰 폭 상승하며 장단기 스프레드는 확대되는 모습
- 반면 국내 경기 회복과 기업 실적 개선이 이어지면서 AA- 회사채 신용스프레드는 장기 평균 수준까지 축소되었으며 추가 축소 여지가 존재
- 따라서 국내 채권시장은 장기 국채보다 우량 크레딧 중심의 투자전략이 상대적으로 유리할 것으로 판단

장단기 금리차 확대



주: 장단기 스프레드는 국고10년에서 국고3년 금리를 차감한 값 추이
자료: Bloomberg, 현대차증권

AA- 회사채 신용스프레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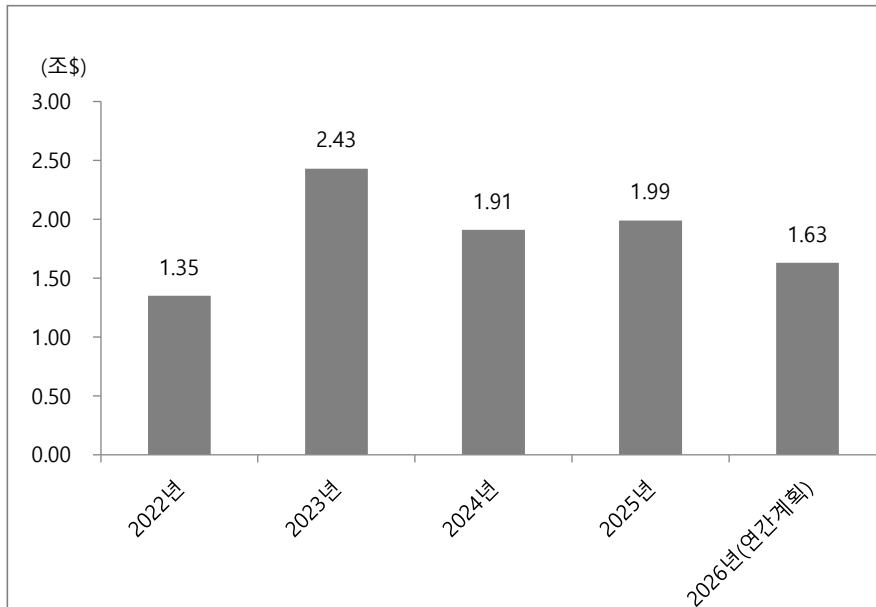
주: 신용 스프레드는 회사채AA- 3년에서 국고3년 금리를 차감한 값 추이
자료: Bloomberg, 현대차증권



미국 국채 순증 발행 둔화에도 장기채 부담 지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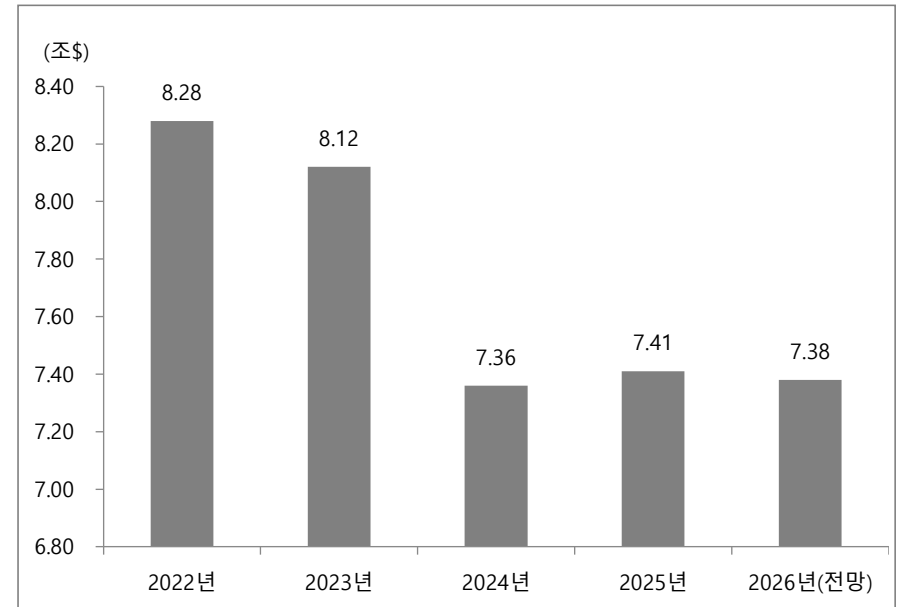
- 시장은 전쟁 장기화와 감세 정책 등에 따른 재정적자 확대 가능성을 반영하며, 미국 장기금리가 단기금리보다 큰 폭으로 상승.
- 그러나 2026년 시장성 국채 순증 발행 규모는 전년 대비 감소하고, 명목 쿠폰물의 평균 발행만기 역시 2024년 이후 7.4년 내외에서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
- 현재까지 확인된 국채 발행 데이터는 시장이 우려하는 공급 확대를 뚜렷하게 보여주지 않으며, 최근 장기금리 상승은 실제 공급 증가보다 향후 재정불확실성과 기간 프리미엄 상승의 영향이 큰 것으로 판단.

미국 시장성 국채 순증 규모 추이



주: 시장성 국채 잔액 증가 기준, 2026년은 1~6월 실적의 연율 환산. 자료: U.S. Treasury Monthly Statement of the Public Debt, 현대차증권.

명목 쿠폰물 평균 발행만기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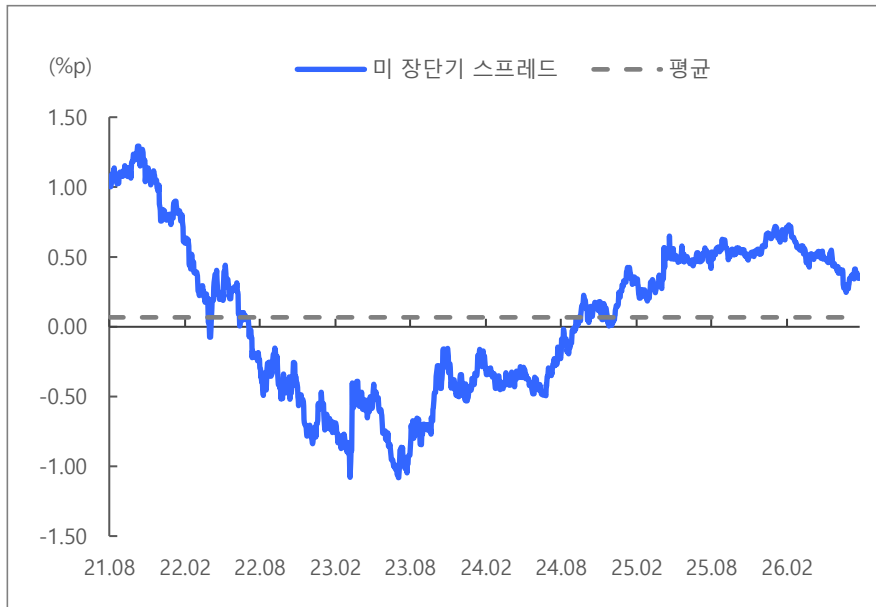
주: 2026년 순증 규모와 평균 발행만기는 1~6월 실적의 연율 환산 기준. 자료: U.S. Treasury FiscalData, 현대차증권.



높은 장기금리와 안정적인 신용여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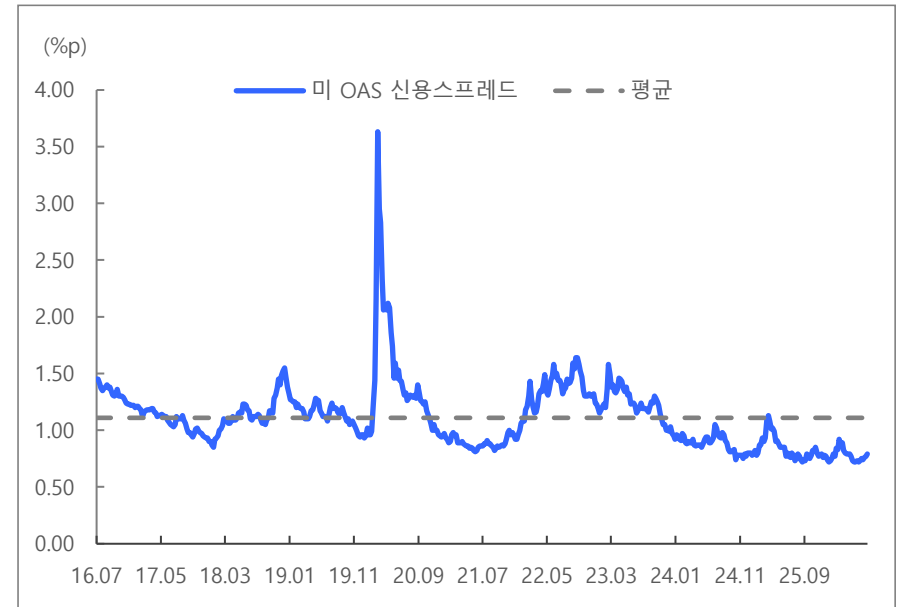
- 미국 장기금리는 재정 불확실성과 기간 프리미엄 상승으로 단기금리 대비 큰 폭 상승하며 장단기 금리차가 확대.
- 반면 투자등급 회사채 신용스프레드는 역사적 평균을 하회하는 수준을 유지하며 기업 신용여건은 양호.
- 최근 금리 상승은 경기침체 우려보다 장기 금리의 기간 프리미엄 확대 영향이 큰 것으로 판단되며, 높은 수준은 장기국채의 기대수익률을 높이는 요인
- 국채 공급 부담은 제한적인 반면 장기금리는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장기국채의 상대적 투자매력은 점차 높아지는 것으로 판단.

미국 장단기 금리차(10년-2년)



자료: Bloomberg, 현대차증권.

미국 투자등급 회사채 신용스프레드(OA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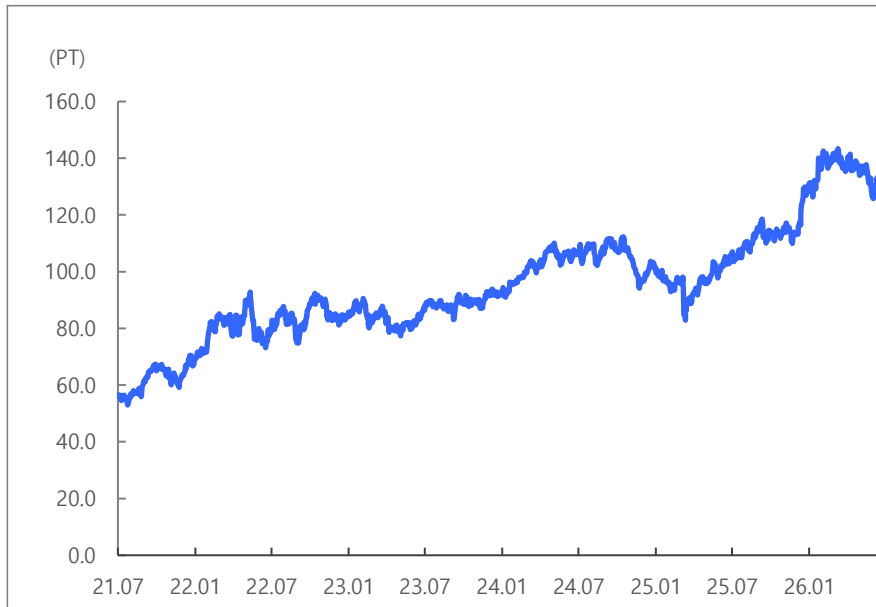
주: US Corporate IG OAS
자료: Bloomberg, 현대차증권.



지정학적 불확실성과 중앙은행 매입이 금가격 지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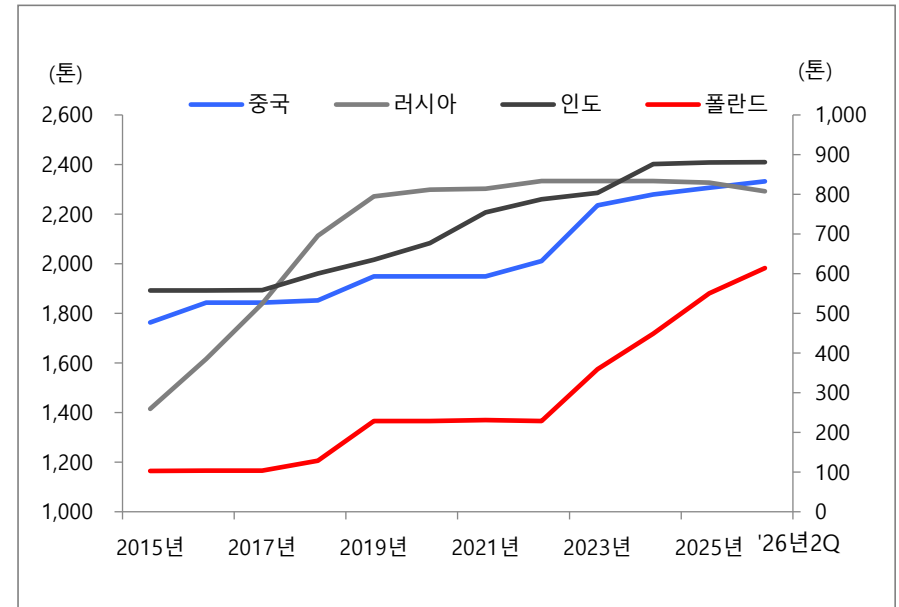
- 중동 분쟁과 글로벌 재정 불확실성 확대로 지정학적 위험이 높아지며 금의 안전자산 수요 지속.
- 중국 · 인도 · 폴란드를 중심으로 주요 중앙은행의 금 보유 확대가 구조적 금 수요를 뒷받침.
- 지정학적 위험과 중앙은행 매입을 고려할 때 금의 전략적 투자매력은 여전히 유효.

글로벌 지정학적 위험지수



자료: Bloomberg, 현대차증권.

주요국 중앙은행 금 보유량 추이



주: 중국 ·러시아는 좌축, 인도 ·폴라드는 우축 기준
자료: World Gold Council, 현대차증권.



2026년 8월 자산배분:
국내주식 선호, 채권은 국가별 차별화

2026년 8월 전망 및 투자선호도

1: 선호도 매우 낮음
5: 선호도 매우 높음

자산군		2026년 8월 전망	투자선호도
주식	국내주식	AI 버블 논란과 반도체 피크아웃 우려로 7월 조정이 나타났으나, 실적시즌을 거치며 이익 모멘텀 재확인과 함께 반도체 중심의 반등 흐름 예상.	4
	미국주식	AI 투자 확대에도 하이퍼스케일러는 FCF 부담과 밸류에이션 부담이 확대되는 반면, 반도체는 피크아웃 우려 완화와 실적 개선으로 상대적 강세 지속 전망.	3
	선진국주식 (미국 제외)	유럽은 물가 부담으로 통화긴축이 이어지는 반면, 일본은 엔화 약세와 기업이익 개선이 증시를 지지하며 지역별 차별화 지속 전망.	3
채권	국내국채	- 금리 인상으로 단기금리 상승 압력이 이어지는 가운데, 확대재정과 국채 발행 부담으로 장기금리도 높은 수준을 지속할 가능성. - 성장 둔화에 따른 장기금리 하락을 기대한 듀레이션 확대보다 높은 금리를 활용한 캐리 수익 중심의 대응 필요.	2
	국내 크레딧 (회사채 AA · 금융채 중심)	- 신용스프레드는 장기 평균 수준까지 축소됐으나, 경기 회복과 기업 실적 개선을 고려하면 추가 축소 여력 존재. - 다만 가격 매력이 낮아진 만큼 선별적 접근 필요.	3
	미국국채	- 실제 국채 순증 발행은 제한적이나, 재정 불확실성과 지정학적 리스크가 장기금리 상단을 자극. - 높아진 금리를 활용한 점진적 분할 매수 전략 유효.	3
대체	금	지정학적 위험과 중앙은행 매입이 금 가격을 지지하나, 전쟁 장기화에 따른 미국 금리 인상 우려와 달러 강세가 상승 여력을 제한. 추세적 상승보다 높은 변동성을 고려해 중립 의견 유지.	3
	원자재	- 휴전 진전 시 유가 하락 압력이 예상되나, 전쟁 전개에 따른 공급 불확실성도 지속. - 지정학적 불확실성이 공존하는 만큼 원자재 전반에 대한 선별적 접근 필요.	3
	글로벌 리츠 · 인프라	- 장기금리 상승과 높은 차입비용이 리츠의 본격적인 회복을 제약. - 인프라는 물가 연동 수익과 안정적 현금흐름으로 상대적 방어력 보유. 리츠보다 인프라 우위.	3

자료: 현대차증권



CUSTOMER



CHALLENGE



COLLABORATION



PEOPLE



GLOBALITY

Compliance Notice

▶ Compliance Notice

- 본 자료는 기관투자가 또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이 자료에 게재된 내용들은 자료 작성자 김중원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 조사분석담당자 및 그 배우자는 해당 종목과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
- 본 조사자료는 투자자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당사의 사전 동의 없이 무단복제 및 배포할 수 없습니다.
 -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로 얻어진 것이나,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최종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 본 자료는 어떠한 경우에도 고객의 주식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